



■ 제주 탐라문화광장 성매매 단속강화 후 현장 가보니…

광장 주변 골목길 호객행위 성행

성매매 업소 위치만 옮겨… 풍선효과 나타나
여성단체 “현장단속보단 업주 처벌 강화해야”

제주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성매매 단속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경찰기식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본보 2월 12일자 4면) 우려가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탐라문화광장 내 음주소란 및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과 경찰, 민간기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TF팀’이 구성돼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음주소란은 지난해 9월

10건, 10월 35건, 11월 18건, 12월 8건이며, 성매매는 9월 3건, 10월 4건, 11월 1건, 12월 0건이다.

이에 대해 TF팀 관계자는 “TF팀 구성 이후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가 위축되는 등 탐라문화광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성매매 호객행위가 근절되기엔 커녕 탐라문화광장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자체가 한정된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그치다 보니 성매매 업소들이 위치만 조금 옮겨 버섯이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이 일대를 돌아본 결과 탐라문화광장에서 약 270m 떨어진 일도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가 목격됐으며, 290m 정도 떨어진 제주지방기상청 주변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일도1동 주민 A(64)씨는 “과거 성매매 호객행위가 탐라문화광장에 집중돼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곳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돼 버렸다”며 “경찰기식으로 단속을 해놓고 성매매 호객행위가 위축됐다고 자평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님 관계자는 “단속에도 오히려 성매매 호객행위가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성매매 당사자들에게만 처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탐라문화광장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은 대부분 막바지까지 물린 경우가 많아 쉽사리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며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해 성매매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제주도는 6일 제주시청 앞에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행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상체 비만, 하체 부실” 공무원노조, 도인사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분부는 6일 2019 하반기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상체 비만, 하체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정부서 발령이 곧 BSC평가를 통한 높은 성과상여금부터 승진 독식까지 보장 아닌 보상으로 이어져 현장 및 민원부서의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시간 1대 1 교류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통한 현장 민원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번 인사 때마다 행정시에서 도청으로의 일방통행적 전이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소진기자

폐수 배출 어선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서귀포항 해상에 선저폐수(유성 혼합물)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70t) 기광장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귀포항에 정박해 기관을 수리하던 중 바다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오전 8시20분쯤 순찰 중 해상에 떠 있는 기름띠를 발견, 긴급 방제작업을 벌여 유출된 선저폐수 85ℓ를 수거했다.

이태윤기자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도, 시청앞서 근절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시청 앞과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이 100여명이 함께 했다.

캠페인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선으

로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홍보됐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도 선보였다. 화재 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방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목적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도로 모퉁이 등이다.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이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동물테마파크 건설 주민 갈등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임시총회개최, 찬반투표, 반대결의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 결성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마을 임시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자체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보고서를 수신하고 마을에 고지했다”며 “지난 4월 열린 마을임시총회는 동물테마파크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향약 규정에 명

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 해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흘2리청년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마을회의의 공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이장과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 협의서는 원천 무효”라며 “마을회의체를 전면 부정하고 선흘2리 주민을 무시하는 이장은 즉각 자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선흘2리청년회 관계자는 “우리는 찬성·반대 측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선흘2리사무소에서 열린 개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장과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 협의서’ 체결 건에 대한 표결을 부결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신호위반 교통사망사고 60대 女 집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외도1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

다 오모(75) 할머니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돼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국관광을 빛낸 별은? 내달 8일까지 후보 추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19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올해부터 ‘한국관광의 별’은 형태·분야별 시상에서 벗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본상과 특별상을 시상한다.

한국관광의 별 본상으로는 ▷본래 매력이 뛰어난 관광자원 ▷콘텐츠와 서비스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관

광자원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자원 중에서 우수한 4개가 선정된다.

특별상은 ▷높은 잠재력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규 관광자원 ▷방송(텔레비전·유튜브·누리소통망 등) 분야에서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 ▷대중문화 전반에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상과 특별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2019 한국관광의 별 국민추천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12월에 열린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OC

M-RC

ITC

RE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와 방문 상담 가능

광양 ← 한국병원 → 오라파출소 터미널 → 신제주

소리샘 보청기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Green Clean!

정원산림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 · 정비

해륙기계 ☎ 722-3414~5 757-0165

구. 병무청 • KAL 호텔 • 신성철 • 자연사박물관 • 제주시 삼성로 35(일도2동)

기산아파트 • 해륙기계 • 사리봉